

# 무안군, 입학 축하금 지급률 80%... 학부모 부담 완화

초·중·고·대 신입생 대상  
지역상품권 10만원 지급  
11월 말 까지 신청 가능

무안군의 초·중·고·대 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급률이 80%를 돌파하며 순항중이다. 총 3010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이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 14일 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

영한 초·중·고·대 신입생 입학 축하금이 지원 대상 3744명 중 3010명에게 지급돼 80.78%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군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받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초·중·고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대학 신입생 1인당 10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즉시 지급하고 있다.

다수의 신입생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남악·오룡 주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집중

신청 기간 남악복합주민센터와 오룡현장민원실 내 입학 축하금 신청장소를 추가로 운영하여 입학 축하금을 빠르게 지급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초·중·고·대 신입생 입학 축하금이 우리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직 신입생 입학 축하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입학 축하금을 신청하지 못

한 주민은 11월 말까지 입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 신청을 통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과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신입생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400명 대상... 청렴 실천의지 강화

해남군은 지난 16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청렴 관계 법령에 대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사원과 전남도 감사부서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라남도 김세국 감사관을 초빙,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 관련 규정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부패 상황 및 대처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임용 1년 이내 신규자와 2024년 이후 승진자 등 공직생활의 중요한 계기를 맞은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다사한번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경북 선수단 등 2300여 명 참가

완도군에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9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과 전남·경북 우호 교류의 일환으로 참가한 경북 선수단 등 총 230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등 총 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결과, 게이트볼은 구례군, 궁도와 파크 골프는 완도군, 그라운드골프와 탁구는 광양시, 배드민턴은 목포시, 산악은 강진군, 소프트 테니스와 체조는 담양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승패를 떠나 선수 간에 친목을 다지는 의미에서 시군 종합 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로 시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회식의 환영사를 통해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만큼 체육 활동은 필수이다”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해양치유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데 완도군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신안군,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발생 ‘0’ 건 달성  
감시원 편성... 순찰활동 강화

신안군은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군민들의 동참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피해 발생 ‘제로(Zero)’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에 따르면 올해 산불 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175건의 산불이 발생해 55ha의 산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군은 정원산림총괄과에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14개 읍·면과 함께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했다.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2명, 산불감시원 10명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강화한 결과 신안군 산불 조심 기간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3~4월에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 행위 단속 및 제도활동을 펼쳤으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산불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산불위험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도 산불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지난 16일 부터 이틀간 열린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완도군 제공

## 해남군, 오시아노서 캠핑관광박람회 개최

10월 3일부터 4일간 열려

해남군이 오는 10월 오시아노 관광지에서 2024 해남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리는 캠핑관광박람회에는 1000여개팀 4만100여명의 캠핑객이 직접 캠핑에 참여하고 110여개 캠핑 관련 기업들이 선보이는 캠핑카와 카라반, 최신 캠핑용품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해남군 캠핑관광박람회는 올해로 3번째로, 야외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캠핑 박람회이다.

오시아노 관광지 내 해변을 인접해 200여명에 이르는 오토캠핑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넓은 잔디광장에서는 업체들이 실제 캠핑장과 같은 시설을 조성해 관람객들을 불러모으면서 캠핑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행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도 베타로, 호상사 등 캠핑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캠핑·카라반·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 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바비큐 존, 캠프니 존, 캠핑카 시티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캠핑객들의 즐

거움을 더하게 된다.

박람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캠핑문화 확산과 ESG 가치실현을 위한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 재활용·쓰레기제로 체험, 플로깅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핑관광 박람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끽하고 캠핑 관련 모든 장비와 용품들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를 통해 2027년 국제행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캠핑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건립

수산양식 발전 목표

해남군은 오는 2027년까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은 수산양식 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 실증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오는 2027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내에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

해 3만3058㎡의 부지에 연구지원센터와 기업지원동, 홍보물류AS센터 등이 들어선다.

수산양식 기자재를 실증시험할 수 있는 육상테스트베드 1400㎡와 해상테스트베드 500㎡도 조성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의 랜드마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양식 기자재 전문 산업단지는 전국 최초로 전국 최대 수산업 지역인 전남의 수산양식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산물은 어획에서 양식 중심으로 전환되고, 양식수산물의 대량생산과 기술 발전으로 수산양식 기자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전남은

타시도에 비해 어업세력, 어선현황, 어업면적, 수산물 생산량이 월등하며 전국 대비 해면양식업 75%, 연근해어업 18%, 내수면어업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조성될 솔라시도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인근 연안시군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첨단 스마트화 연구개발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산기자재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산 기자재 업체 실태 조사 등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의 조성방향, 세부 건축계획, 운영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올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7년 클러스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군,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6일부터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목요일 야간 민원실은 평일 주간 시간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부부, 학생, 주민 등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8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암군청 본관 1층 민원소통과에서 운영되는 목요일 야간 민원실에서는, 여권 신청 접수·교부를 포함해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출입국 사실 등 민원 증명 서류를 발급한다.

영암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없는 민원 서비스도 제공해서 영암군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바쁜 일과로 주간 민원실을 방문할 수 없는 영암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진도군, 임대농기계 사용 교육

진도군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작업 중 농기계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 간단한 수리방법과 작동법, 안전한 관리법 등을 알려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군은 임대농기계 사용 교육을 통해 농가의 이해를 돕고 농기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작게나마 해소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운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통해 농기계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고장 발생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농기계 사용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